

6월 14일(월) / 사 15-18

▶ **내용요약** : 이사야 15-16장에는 모압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인데, 스스로의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탄식하셨고 그들에게 피할 길을 제시하기도 하셨다. 한편 17-18장에는 에브라임과 다메섹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다메섹과 에브라임은 앗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연합을 하였는데, 자신들에게 동참하지 않은 남유다를 위협하였다. 그러나 결국 다메섹과 에브라임은 앗수르의 침략으로 인해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

▶ **질문** : 다메섹과 에브라임이 대항하려고 했던 나라는? (17-18장)
▶ **생각하기** :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신다. 그리고 공의로운 판단으로 죄인을 심판하신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멸망당함을 기뻐하지 않으신다(에스겔 18:32, 33:11). 오히려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에 이르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다. 이제는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때이다.

6월 17일(목) / 사 39-42

▶ **내용요약** : 이사야 39장에서 바벨론의 왕 므로닥발라단은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냈다. 이에 히스기야는 기뻐하면서 바벨론에서 온 사절들에게 보물 창고와 무기고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책망하셨고, 장차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4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위로하는 희망을 말씀을 선포하셨다. 또한 이사야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나타냈다. 4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열방과 거짓 우상들을 상대로 변론하심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셨다. 또한 42장에서는 한 종을 세우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나타내셨다. 궁극적으로 이 종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

▶ **질문** : 건강을 회복한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낸 나라는? (39장)
▶ **생각하기** :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시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초월적이시고 광대하신 분이시다.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존 플라벨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태양이나 달도 어두운 형체에 불과하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겸손히 그분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자.

6월 20일(일) / 사 64-66

▶ **내용요약** : 이사야 64장에서도 이사야의 간구는 계속되고 있다. 이사야의 기도는 그 누구보다도 더 간절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속히 회복시키시기를 기도했다. 이후 이사야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계속해서 간청했다. 65장에서는 다시금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선포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 것은

6월 15일(화) / 사 29-31

▶ **내용요약** : 이사야 29장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 회복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예루살렘을 둘러 진을 치시고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유다 백성들의 형식적인 태도와 불의한 삶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도 약속해 주셨다. 30-31장에는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 유다의 왕과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여 앗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그러나 그들의 판단은 매우 잘못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 **질문** : 유다의 왕과 정치 지도자들은 앗수르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누구를 의지하고자 했는가? (30-31장)
▶ **생각하기** :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허황되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거나 성급하게 판단하여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새가 날개 치며 새끼를 보호함과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자.

6월 18일(금) / 사 52-54

▶ **내용요약** : 이사야 52장에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회복될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한편 52장 13절에서 53장까지는 고난 받는 종에 대해 예언하고 있다.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 친히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그는 모든 죄인의 죄악으로 인해 찔림과 상함을 당할 것이다. 54장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실 뿐 아니라, 그들의 남편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큰 긍휼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53장)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 **생각하기**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부 하나님께 충성하셨다. 학기를 마치는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보자.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학기를 마무리 하는 은혜를 누리자.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17절)"고 하셨다. 그리고 이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다. 마지막으로 66장에서는 거저된 예배와 그것을 행하는 악인들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며, 남은 자들을 모으심으로써 참된 예배 공동체를 이루실 것임을 기록하였다.

6월 16일(수) / 사 32-34

▶ **내용요약** : 이사야 32장에는 의로 통치할 왕의 나라와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 그 나라는 정의의 나라이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이다. 33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한편 이사야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바라보았다. 그날에는 예루살렘에 진정한 자유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며,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34장에는 원수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는 날에 에돔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 **생각하기** :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이사야처럼, 이 시대에도 교회와 민족을 위해 무릎 꿇는 기도자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기도가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며, 교회와 학교, 나라를 위해 간구하는 한 사람의 기도자가 되자.

6월 19일(토) / 사 61-63

▶ **내용요약** : 이사야 61장에서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고 있다.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될 것이다. 또한 황폐해 졌던 곳이 회복되고 슬픈 자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로 인해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6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이스라엘에게 새 이름(헬시바, 뿔라)을 주셨다. 이 이름은 하나님과의 혼인과 그로 인한 기쁨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어서 63장에서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나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1-2절)" 또한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위해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 **질문** : 하나님과의 혼인관계와 그로 인한 기쁨을 잘 보여주는 새로운 이름 두 가지는 무엇인가? (62장)
▶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며, 그로 인해 우리가 기쁨을 누리길 원하신다. 존 파이퍼의 말과 같이 우리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66장)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 **생각하기** : 이사야는 그 시작과 끝에서 '예배'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또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더 깊은 묵상을 위해 요 4:24, 롬 12:1-2을 읽어보라)